이코노 & 비즈 피플

이달의 기능 한국인 윤 정 록 프로텍코리아(주) 대표

"독창적 기술력은 발상 전환에서 출발"

일체형 너트 성형기법 개발… 직원 1인당 年 2억 매출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 기술력은 연구실의 '머리'에서가 아니라 생산현장의 '손끝'에서 나오고, 타성을 깨뜨리는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됩니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선정하는 4월 '이달의 기능 한국인'에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단에 있는 프로텍코리아(주) 윤정록(45) 대표가 뽑혔다.

일체형 너트성형기법(EMS공법)을 개발, 부품산업의 신기원을 연 윤 대표는 "독창적 기술력만이 중소기업,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가 살아남을 생존 비결"이라며 "신기술은 발상의 전환에서 시작돼 오너의 관심과 지원, 개발자의 인내와 시행착오가 뒤따라야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화순 출신인 윤 대표는 전남기계공고, 전북대 정밀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뒤 (주)대우일렉트로닉스 광주공장에 입사했다가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 됐다. 당시 금형부문 책임자였던 그는 2000년 2월 회사 동료 23명과 프로텍코리아를 설립했다.

2006년 윤 대표의 아이디어로 금속판에 너트 성형을 동시에 찍어내는 EMS공법 기술 개발에 착수해 1년여간 시행착오 끝에 성공했다. 프로텍코리아는 이 공법으로 연 매출 107억원, 10년간 누적 수출액 1000만 달러에 이르는 튼실한 기업으로 성장했다. 2008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윤 대표는 "독보적인 기술력 덕분에 지난해 직원 24명이 107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며 "1인당 연간 생산성이 2억원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그는 현재 중국 2대 가전업체인 '메이디'의 총재기술고문직도 맡고 있다. 매달 일주일 정도 중국 광둥성 메이디공장을 방문해 금형 관련 기술을 조언해주고 있다.

윤 대표는 내년 광주 하남산단에 3500평 규모의 EMS전문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다.

윤 대표는 "자동차·가전산업을 넘어 산업 전 분야에 갈수록 EMS 부품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전문공장을 설립해 수요를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부품 공급업체에서 벗어나 계란찜 용기, 속옷 세척기, 차량용 전자레인지 등 틈새시장을 노린 가전제품도 생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중흥건설, 순천신대지구 1466가구 분양

7일 모델하우스 개관

중흥건설(회장 정창선)이 순천 신대지구에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한다.

㈜중흥건설은 2일 순천시 해룡면 신대리에 3.3㎡당 500만원대의 실속형 중소형 아파트 중흥S-클래스 1466가구를 오는 7일부터 분양한다고 밝혔다. 〈조감도〉

이번에 공급하는 중흥S-클래스는 59㎡(24평) A형 273가구, 59㎡ B형 288가구, 71㎡(28평)형 388가구, 84㎡(33평)형 517가구 등 총 1466가구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4~30층 13개 동으로 전남 동부권에서 최고층 아파트다. 분양가는 3.3㎡당 500만원대 후반으로 내집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를 겨냥해 책정됐다.

대단지 규모에 맞게 휘트니트센터와 실내골프연습장, 독서실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 또 첨단 홈네트워크·주차관제시스템 등 첨단 디지털시스템이 도입되며, 축구장 크기의 생태중앙광장 등 단지의 42%를 조경시설로 꾸미는 등 쾌적한 아파트로 조성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오는 7일 순천시 조례동 조례호수공원 건너편에 개관한다. 개관 당일 모델하우스를 찾는 고객에게는 50인치 PDP 평면TV, 양문형 냉장고 등 푸짐한 경품이 주어진다.

한편 명품신도시로 개발 중인 순천 신대지구는 299만7095㎡ 규모로 지난 2008년 3월 착공, 민자 4987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까지 1단계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두 1만1000가구에 인구 3만명이 거주할 주택용지를 비롯해 쇼핑시설, 18홀 골프장, 명문학교 유치, 공공시설 등이 들어선다.

특히 신대지구는 순천과 여수, 광양을 연결하는 교통 중심지로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예정돼 있어 후광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1588-2110.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주간 증시 포커스

반도체·자동차주 투톱 지수견인 최근 강세 옐로우칩 관심 필요

4월 중 코스피는 2.9% 상승해 두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중순 이후는 박스권 횡보를 보였다. 외부적으로는 그리스 재정문제의 재부각, 내적으로는 기존 지수상승을 주도했던 반도체·자동차주의 조정국면이 작용한 탓이다.

금융시장, 특히 주식시장에서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로 본다면 악재인 그리스 변수는 그 위력이 점진적으로 약해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코스피 지수의 추가상승을 가로막았던 기존 주도주의 조정세도 지난주를 기점으로 뚜렷한 변화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자동차주가 월초의 조정을 딛고 신고가를 넘어서고 있으며 반도체주도 반등대열에 동참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1분기 실적발표 이후의 매물소화과정이 짧고 얕은 수준에서 제한된 반면에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2분기까지 확장되는 양상이다.

국내 시장 외부의 불확실성이 개선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고, 코스피 주도주가 부활한다면 지수는 박스권 상단의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도 커졌다. 지금까지 상승국면을 견인해 왔던 경기회복 및 기업들의 실적개선 모멘텀이 여전히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5월초 장세는 최근의 변동성 횡보국면 이전의 모습이 유사하게 재현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반도체 및 자동차주 중심의 투톱체제가 지수를 견인한 가운데 제한적인 범위의 후발주 그룹이 틈새시장을 형성하는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재차 상승탄력을 회복하고 있는 반도체 및 자동차주에 대해서는 지수의 추가상승 가능성을 겨냥한 분할매수 관점의 유지를 권한다.

또 종목별 차별화가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면 그동안 못 오른 내수주로의 확산을 기대하기보다는 가격부담이 있더라도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는 옐로우칩군(群) 중심의 대응이 유리하겠다.

박 종 모 〈신한금융투자 광주지점장〉

농협전남본부 고객 사은 잔치

금리우대·경품 증정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가정의 달을 맞아 3일부터 풍성한 고객 사은 이벤트를 실시한다.

우선 5월 한달 동안 '후토스 통장'에 가입한 어린이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하고 만 60세 이상 고객이 '채움 정기예금' 가입하면 0.1% 금리우대를 적용한다.

또 추첨을 통해 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예금' 가입 고객들에게 농산물 상품권, 농협쌀(20㎏) 등을 지급하는 '어버이 사랑 감사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근 출시한 '채움 패키지 상품' 5개 가운데 1개 상품 이상 가입해 5월 말까지 3개 이상 보유한 고객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농협쌀(20㎏)을 증정한다.

이밖에 5~6월 중 관내 영업점 가운데 한 곳을 선정, 우수 고객을 초청해 최근 상영 중인 인기영화를 상영하는 행사를 열 계획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전국 모든 세무서서 체납 국세 납부 가능

광주지방국세청은 3일부터 전국 모든 세무서에서 체납된 국세를 낼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부가가치세(사업장 관할)와 소득세(주소지 관할) 등 2개 이상의 세무서에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사업자 세무서, 주소지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 세금을 내야 했지만 이제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모든 세금을 낼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고지서 등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에 세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하면 납부 처리하는 '세금납부전용계좌' 도입도 검토 중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